

청년들의 짧고 신선한 아이디어로 전주푸드 알린다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푸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

전주시 청년들이 안전한 시민 먹거리인 전주푸드 알리기에 나선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욱)는 지난 6일 센터에서 지난 3월 말까지 모집된 청년 서포터즈 신규 단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주푸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날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는 새롭게 선발된 청년서포터즈 단원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전주푸드에 대한 이해를 높기 위한 시전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고,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 참석자들은 전주푸드 직매장을 견학했다.

전주푸드 청년서포터즈는 향후 전주푸드 관련 UCC 홍보영상과 전주푸드 생산농가와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한 텀블레이 인터뷰 등을 직접 제작하고, 제작된 전주푸드 관련 콘텐츠를 전주푸드 홈페이지(www.jeonjufod.org)와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SNS 등을 통해 알리는 홍보 일을 맡게 된다.

전주푸드 청년서포터즈단은 또 전주푸드 관련 각종 행사에 참여하거나 온라인 홍보를 지원하는 등 전주푸드에서 제시하는 미션 수행을 참여해 지역 농업에 대해 배우고 경험하게 된다.

청년서포터즈에게는 활동실적에 따라 자원봉사 마일리지 등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센터장 강성욱)는 지난 6일 센터에서 지난 3월 말까지 모집된 청년 서포터즈 신규 단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전주푸드 청년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강성우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장은 "전주푸드는 다양한 계층을 만나 전주푸드의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적극적으로 사업화할 예정"이라며 "향후,

전주푸드 청년서포터즈를 통해 짧고 신선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빛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채규남기자

김제시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치매 극복 건강 걷기 행사

김제시보건소(소장 김형회)는 치매 예방에 좋은 '걷기'를 실천하며 치매극복을 기원하고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 걷기행사를 지난 7일 어머니의 포근함을 느낄 수 있는 모악산에서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걷기행사는 치매국가책임제의 핵심 주요 행사로 "치매애(愛) 희망을 나누다"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계층의 참가자 약 1,000여명이 참여해 치매기족인 '사회적 가족'이 되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노인인구의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2018년도 김제시 전체 인구 중 65세 비율은 29%로 초고령화 사회이며 치매에 이환될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어, 더불어 살아나고 있는 치매환자와 가족에 대한 관심과 배려를 위한 인식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이유이다.

주요 행사로 코스 걸기(주차장에서 금산사 경내까지 2.6km)와 고혈압 당뇨, 금연, 심뇌혈관질환, 암예방 출신강연 등 홍보부스를 운영하여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김형희 보건소장은 "치매예방을 위한 최선의 방법은 건강한 생활습관과 운동이며 김제시 치매 걷기행사를 통해 치매에 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제=곽노태기자

무주경찰, 공정한 지방선거문화 정착 위한 선거사범 모의훈련

무주경찰서(서장 윤중섭) 수사과장 정진만은 9일 전국지방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사범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과 단속 역량 강화를 위한 불법행위 대응 현장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이날 모의 훈련은 무주 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체를 구축하여 선거 운동원이 돈 봉투를 주민들에게 제공하는 상황을 가상으로 설정하고, 선거상황실 수사단단장, 강력계 형사, 112순찰요원 등이 현장에 투입돼 실제 범인 검거작전을 펼쳤다.

정 과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각종 선거사범에 신속 공정하게 대응하고 이를 토대로 공정선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홍보활동도 적극 펼쳐겠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기자

고창경찰서, 다문화가족 보호지원 프로그램 토크

고창경찰서(서장 김성재) 청문간사실에서는 관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 방문 읍면지역 현장 진출 지역 다문화 가정을 방문 봉사하는 상담사들과 피해자 보호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폭넓은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흐르면서 다문화 가정이 늘고 있는 실정을 감안 운영중인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활발한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 가운데 각 종 범죄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또한 보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식, 경찰서 청문간사실과 동센터 현장 상담요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범죄 피해로 인한 직간접적인 도움 방안을 모색하고 경찰에서 실시 중인 보호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해의 시간과 실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상호 협력을 통한 제대로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합목소리를 냈다.

센터 상담요원들은 "경찰에서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좋은 일을 하고 있는 만큼 센터 요원들도 같은 마음으로 적극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 전국 우수축제 벤치마킹

전안홍삼축제추진위원회는 4월부터 전국의 우수축제의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첫 번째 벤치마킹 대상지는 벚꽃과 지역문화를 잘 어울어진 4년 연속 문화관광부 주관 유망축제로 선정된 영암왕인축제로 지난 4월 6일 15명의 문화홍보분과 운영총괄 분과 위원들과 군 관계자가 함께 다녀왔다.

이번 벤치마킹은 지난 2월 추진위원회 총회 때 타시군의 축제 운영 우수사례를 직접 경험하며 홍삼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 위원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작년보다 2회 증가한 총 6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영암왕인축제는 벤치마킹한 추진위원회들은 월출산의 관광지원과 왕인유적지를 중심으로 축제장에서 먹거리 체험을 위원들이 직접 보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전안=우태만기자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 민·관 합동 낙석 제거

국립공원관리공단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허영범)는 봄철 해빙 기를 맞아 9일 민·관 합동으로 낙석 제거작업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덕유산국립공원, 전북재난및산악구조대, 덕유산산악구조대 등 20명이 참여해 황점~삿갓재 구간 탐방로의 급경사지 8개소를 점검하고 위험 낙석 약 10여 톤을 제거했다.

덕유산국립공원사무소는 봄철 해빙기간 동안 낙석 위험요소가 높은 22개소의 급경사지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탐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할 계획이다.



/무주=전문선기자

순창 구립면 사회복지협의회 사랑의 희 나들이 봉사활동

구립면 사회복지협의회가 지난 7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희 나들이 봉사활동을 벌였다. 가동이 힘들어 혼자서 바깥나들이가 힘든 75세 이상 고령 어르신 30여명을 모시고 구례 쌩계사와 여수 오동도 견학을 하고 몸에 좋은 한방차를 기념품으로 증정했다.

구립면 사회복지협의회 박순남 회장은 "나들이에 참석한 어르신들이 즐거워 하시니 너무 보람있다."며 "어르신들이 꼭 필요로 하는 의미있는 복지사업을 꾸준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순창=이양원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젠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



대표 이영근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